



#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해외도시개발 전략



이상정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개편을 주도하는 선진 신흥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010년 서울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 3월 2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핵안보란 주요 이슈뿐 아니라 각국의 주요 현안들까지 논의되는 정상회의장으로 활용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 국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세계 4대 스포츠대회를 모두 유치하게 되므로 세계 여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 달성국가가 된다.

## 달라진 경제적 위상 그러나 왜곡된 사회 구조 나타나

2011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는 대한민국이 연간 무역 1조 달러(수출 5,150 달러, 수입 4,850 달러)를 달성한 세계 아홉 번째 국가가 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거대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국격 상승의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시작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가발, 신발, 원구, 의류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출발하여 1974년에는 100억달러를 달성하였고, 제철산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대규모 정치 제조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석유화학제품, 건설, 플랜트 수출로 1988년에 1천억달러, 2005년에 5천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세계 각국과 FTA협정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여 전세계무역시장을 선도하는 FTA 무역의 허브국가로서 개도국에서 선진무역국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돌고돌고 인구 5천만인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개국 밖에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격의 상승과 국력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청년실업률 증가, 고소득층과 극빈층으로 양분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는 왜곡된 사회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창출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수출에 대한 이익이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새로운 경제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역 1조 달러의 신화 속에 숨어있는 외화내빈의 사회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내 건설수주부진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앞으로 무역 2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며, 첨단 원천기술과 대단위 플랜트 및 첨단도시 수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본 위원회는미래를 대비, 주요건축정책설정에 나가고 있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1년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중동·아시아지역의 플랜트 사업 위주에서 도시수출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건축정책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신도시 개발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건설시장의 한계와 침체된 건설경기로부터 탈출은 신재생 에너지 및 IT 기술 등을 활용하는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외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건설(토목 및 건축), 정보통신 및 교통체계 등 첨단 신도시 관리와 경영, 무역 등 종합적인 산업수출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해외도시수출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경제영토확장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개발 시장은 확대되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설시장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인구 전망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증가하는 13억 명의 도시인구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구 39만명의 분당급 신도시가 3,000여개가 필요하게 된다. 도시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은 자동차, 반도체, 플랜트 등의 수출품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가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해외도시개발 시장에 앞 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인도 DMIC사업에 진출하여 스마트 시티의 전 설비를 일괄수주하고 델리-뭍바이간 산업철도 건설, 계획인구 3,500만 인을 위한 24개의 산업·주거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국 도시인구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구 39만명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국 도시인구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구 39만명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건설사가 독립적으로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도시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부절차의 협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조건 변경 등으로 담보상태에 머물다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2011)는 해외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현 시국 정보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둘째 사업제안 단계 및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총량의 부담, 셋째 해외도시개발이 기본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종합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다섯째 현지국에서의 관련제도 미비와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민간 기업으로서의 협상력 부족, 여섯째 한국의 신도시건설 노하우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간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구성에 의해 해외도시개발을 지원하는 총괄 조정기구와 금융지원제도, 지원관련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해외도시개발 전략으로서의 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정부는적극적인 지원 나서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주택건설 분야 서민주택 50만호 건설 등, 친환경 도시건설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총667억 달러(약74천원)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에 20개의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리비아의 1200억 달러 규모 전후복구 및 재건사업이 중동의 차세대 대형 프로젝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제2의 중동 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를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항만공사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중동건설 수주로 경제위기의 진원지에서 활로를 열었고 눈부신 경제전진을 이룬 바 있다. 1970년대 중동 국가들은 원유가 급등으로 벌어들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현재는 첨단 의료시설의 병원 건설, 4세대(4G) 이동통신망 LTE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건설인력 확충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되고, 외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최첨단 설계와 기술을 동반한 해외도시개발이 건설업계에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건설인력 확충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되고, 외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최첨단 설계와 기술을 동반한 해외도시개발이 건설업계에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 여러분의 꿈을 키워드립니다.

조합원의 사랑과 관심으로 광주건축사신탁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건축사신탁 임직원 일동 올림





## 월봉 서원 교육체험관



##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신구광산동 454-12번지와51번지  
 건축면적 : 381.60m<sup>2</sup> / 건폐율 21.04%  
 연 면 적 : 381.60m<sup>2</sup> / 용적률 21.04%  
 주요의장 : 환식기와지붕, 와편치장발기, 황토콜탈위 회사마감  
 건물규모 : 지상 1층



## 진월동 아이안과 빌딩



##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안천수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5번지 외 2필지  
 건축면적 : 620.29m<sup>2</sup> (187.64평)  
 연 면 적 : 3,171.36m<sup>2</sup> (959.33평)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R.C조)  
 건물규모 : 지상 6층



## 삼성 메디타워



##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엔스페이스 은철영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68-4번지  
 대지면적 : 1,503.33m<sup>2</sup>  
 연 면 적 : 7,097.71m<sup>2</sup>  
 주요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 전북 군산시,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사업으로 도시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 꾀한다

- 지난 2월 말, 문화관광부 주관의 2012년도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신청한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선정  
 -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원도심 지역 재생에 총 32억 6000만원이 투자되고 그동안 구축된 하드웨어적인 근대역사문화 관광 인프라가 동선으로 연결될 것



전라북도 군산시에 근대 건축물을 연결한 역사테마거리가 조성된다. 군산시는 지난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관광부 주관 2012년도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1930 근대 군산, 시간 여행' 이 선정되었다고 밝히며 군산시 월명동과 영화동 일원에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3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930년대 삶 스토리텔링', '건축물 입면(경관) 개선', '맛의 거리 조성'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사업의 관계부서인 군산시 문화체육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 하였으며 관계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독자들에게 알려드림을 밝히는다.

- 편집자 주

## 세부사업계획

### (1) 1930년대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 위치도



- 개요
  - 위 치: 역사 탐방로 구간
  - 사업내용: 근대역사 문화체험 스토리텔링 및 종합 안내판설치, 홍보물 제작 (탐방길 지도 제작 포함, 전시시설 등)
  - 사업비: 1,200백만원 (자본보조)
  - 기 간: 2012. 5 ~ 2012. 12.
- 내용
  - 조계지 및 일대 식민지 수탈 현장, 영화촬영, 채만식의 <타국>, 조정래의 <아리랑>에 기초한 배경지 구슬화
  -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홍보물 제작
- 효과
  - 독특한 근대문화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브랜드(BRAND)화
  - 경관로 및 탐방로에 불거리, 놀거리, 먹거리, 잘거리, 살거리, 느긋거리 확보로 새로운 관광 소득원 창출

### (2) 역사 탐방로 조성

#### ● 역사 탐방로



- 사업개요
  - 구 간: 750m (근대역사박물관 ~ 근대역사체험공간)
  - 사업내용: 건축물 입면 개선 경관정비, 시설물정비, 간판정비
  - 사업비: 500백만원 (자본보조)
  - 사업기간: 2012. 5 ~ 2012. 12.
- 내용
  - '30년대 역사형 풍경 재현 (외벽, 담장, 일본식가옥 오픈가든 등)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지붕선, 처마선, 식재 및 조정
  - 구간별 관광 안내 시설물 구축 및 쉼터 조성
  - '근대역사가 흐르는 풍경을 주제로 분위기 연출
- 효과
  - 1930년대 삶의 문화 재현, 도심내 관광 이미지 구축
  - 근대역사박물관 조선은행 등, 근대역사 문화 체험공간과 연계되어 도심관광 특성화 가능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899년 개항과 더불어 조성된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이 신도심 개발로 문화관광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도심에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의 기반시설 확충·정비로 도심 관광 자원화.
- ※ 기존 개발사업이 H/W 중심으로 S/W 개발 및 정비 필요
- 주변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한 구·세관 구조선은행, 히로쓰가옥, 동국사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등 탐방거리 보행 환경 개선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
-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개관으로 관광객 급증 (20,000여명/월)
-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교육의 장으로 관광 명소화,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

## 추진방향

- 주변 근대문화시설 구조선은행, 근대역사박물관, 근대역사체험공간 등과 연계한 1930년대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지역의 역사·문화와 지역 주민의 삶을 관광콘텐츠로 중점 개발하여 특색있는 역사 탐방로 조성
- 일제강점기 삶의 수탈의 역사 및 영화 촬영지와 연계한 체험코스 관광 자원화
- 주변 근대역사 건축물을 활용한 민박체험, 연극활동, 학습동아리 활동 등 연계 조성

## 추진경과

- 근대역사 문화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09. 10. 13
- 근대역사 박물관 개관: '11. 9. 30
- 근대건축물 보수·복원 공사: '09년 ~ 지속추진 (조선은행 등)

## 사업개요

- 위 치: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일원
- 사업기간: 2012. 3 ~ 2012. 12.
- 총사업비: 3,260백만원 - 국비 1,630백만원, 지방비 1,630백만원
- 사업내용: 1930년대 삶 스토리텔링, 영화촬영지에 대한 관광 자원화, 건축물 입면경관 개선, 간판정비, 맛의 거리 조성, 근대역사 테마 상설 및 기획 공연
- 사업내용
- 주요사업 내용
  - ① 1930년대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구 간: 역사탐방로 구간
    - 내 용: 근대역사 문화체험 스토리텔링 및 종합 안내판설치, 홍보물/탐방길 지도 제작 포함, 전시시설 등
  - ② 역사 탐방로 조성
    - 구 간: 750m (근대역사박물관 ~ 근대역사체험공간)
    - 내 용: 건축물 입면 개선 경관정비, 시설물정비, 간판정비
  - ③ 맛의 거리 조성
    - 구 간: 400m (이성당 ~ 구.월명동사무소)
    - 내 용: 도로정비, 간판정비, 건축입면개선, 편의시설물벤치, 쉼터, 지전거 보관대
  - ④ 근대역사테마 상설 및 기획 공연 (관리)
    - 위 치: 대한통운창고 (다목적공연장)
    - 내 용: 상설공연 <근대역사극>, 기획공연 <우리시대 등>
- 시행주체: 군산시, 지역협의회



● 역사 탐방로 - 디자인(안)



탐방로 개선 계획도



당초

변경

(3) 맛의 거리 조성

● 위치도



맛의 거리구간



● 사업개요

- 구 간 : 400m (이성당 ~ 구.월명동사무소)
- 사업내용 : 도로정비, 간판정비, 건축입면개선, 편의시설물 (벤치, 쉼터, 자전거 보관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 (자본보조)
- 사업기간 : 2012. 5 ~ 2012. 12

● 내 용

- 보도정비로 보행환경개선 및 군산의 음식 홍보
- 규격과 형태는 근대역사 풍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시,
- 업종별 특색 있는 도시조경 및 디자인으로 설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통해 광고 효과 극대화
- '휴식이 있는 풍경을 주제로 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사업개요

- 무분별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통해 광고 효과 극대화

(4) 근대역사테마 상설 및 기획 공연(관리)

● 위치도



● 개요

- 운영기간 : 2012. 5 ~ 2012. 10. (6개월간)
- 운 영 비 : 150백만원 (경성보조)
- 공연장르 : 연극
- 운영회수 : 40회 (주 2 ~ 3회)
- 운영단체 : 극단 동당애 (창단 2010. 5월 / 회원수 111명- 주민 포함)

● 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시 설 내 용	운영 기간
상설공연	근대역사테마공연	근대역사극<군산 역사의 웃음 일대>	토요일 (5월~12월) 마지막 주 제외
	우리시대를 만나다	우리시대 영웅을 만나다, 청담도 (인상물) 유전국민악단극 (공명보라래) 전통한지복합인형극 (삼년고개) 타악퍼포먼스 (츄소리) 전래놀이극 (해와달이던 오누이)	토요일 (5월~6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7월~8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9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11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매월 마지막 주

성과관리 방안

(1)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관광객 증가

- 근대문화 탐방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효과 거양
- 새만금 연 방문객 추정치 : 1,000만명 /년 ※ 2010. 4. 27 ~ 2011. 4월까지 1,000만명
- 근대역사박물관 개관 2011. 9. 30) 이후 관광객 급증(1,000명 → 22,000여명 /월)

(2) 도시 관광 소비 증가

- 근대문화 탐방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소비 증가로 지역 부가치 창출
- 3,000,000명/년 x 100,000원 = 3,000억원/년
- ※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한국관광공사) 진단 결과 새만금방문객 중 30% 원도심 유입

(3) 근대시대 기념품 매력 상품 개발

- 먹거리, 근대시대 화제 근대건축물 모형 등 상품 판매 수입
- ※ 3,000,000명/년 x 10,000원 = 300억원/년

(4)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고용 창출 기여

- 거리풍경, 민박체험, 청주주조체험 영화주인공, 근대시대 역사체험 등 해설사 100여명
- 맛의 거리 조성 등 : 100개 업소 x 2명 = 200 여명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빗꽃축제와 연계한 근대문화축제 동시 운영 : 예술단체 5개소 x 20명 = 100 여명

(5) 도시경관 개선으로 역사 체험공간 제공

- 노후화 건물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원도심지역 투자 심리 유도

(6) 기타 운영방안

- 지역협업의 구성 : 주민들이 모이고 지역의 아젠다를 생성하고 지역의 기록물과 가치를 보호하는 교류공간 구축
- 만남의 공간 : 실버세대 및 사회적 기능이 충분한 기성세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저감, 해설사, 놀이방, 문화학교 등 세대를 아우르는 활용 가능 구축
- 자율단체 : 지역의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을 근처 주말농장 또는 유기농 양질의 소량생산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위탁하며 거래하여 권역의 운영수익의 확보와 도농연계 과정의 일환으로 육성 발전

(7) 향후 운영 경쟁력 제고 검토

- 근대문화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재생기록과 역사, 생활, 문화기록 등 군산근대 문화아카이브의 구축
- 대학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 양질의 전문 인력과 책임감 있는 정보관리와 축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운영 주체 정책적 지원
- 지역협업체가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기록, DB, 정보화, 출판 사진 영상매체 등) 최대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며 상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체 육성
- 기타 다양한 활용의 기회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위해 유사 시민조직과도 연계.

기대 효과

(1) 근대문화중심 도시로 발전

-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확대에 의한 지역 결속력 확대와 다양한 문화 전문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건축 및 도시계획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작업과 활동에 자극과 창작 소재 발굴의 기회
- 근대문화중심도시의 군산시 미래 청사진 공고히 하는 역할 기대
- 지역재생 기반 DB 구축 등 도시 재생분야 정보와 추진으로 도시정보시대 선도
- 지역재생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확대, 사이버 전시와 정보 서비스 등 문화의 저장소, 지역재생 문화 은행으로 기회 창출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풍부한 교육적 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친숙성을 증진시켜 관광객 증진 유도

(2) 문화 향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상대적 문화예술 및 도시 편의 환경의 낙후지역인 원도심 및 인근지역 내 문화 예술 및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자로서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
- 군산 시민과 문화예술가들의 문화의식 및 유대관계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하여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적인 환경을 틀 마련
-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지면 확대 및 가족단위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기능 제공

(3) 지역 이미지 향상

- 각종 문화행사 및 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외부에 대한 군산의 이미지 향상 효과
- 군산시 내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명소화 하는 한편 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관광으로 전환
- 실형적인 예술 활동가 및 단체와 지역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다원 예술의 허브 역할 수행

(4) 근대화 과정의 희생의 치유

- 방치되었던 흉물스러운 건축에 썩지공된 조성 탐방로 조성 등으로 경관 및 미관 개선 및 쾌적성 증대 효과
- 근대산업유산인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예술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회상과 소외에 대한 보상과 치유
-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 문화관광 콘텐츠들의 단계적인 개발과 연계를 통한 군산만의 독특한 도시문화 활성화 조성

(5) 새로운 관광도시 기반 확보

- 소외되었던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근대역사 문화 발전 기여
- 군산 지역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근대산업유산 및 역사적 사실에 연계한 분야 특화 가능
- 근대유산을 활용한 시설물 내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증대를 통한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시너지 효과
- 국제 전시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군산의 근대문화 도시의 리더쉽 구축과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증대
- 문화관련 분야에 사회 문화적 일터를 확보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지역 내 문화 소비 생산의 순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의 기폭제로의 역할 기대
- 현장에서 전문성을 증진과 다양한 도우미 전문적 자원 봉사 등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이해도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의 생활화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인식 향상



# 세계의 신도시\_ 8부

## 건축적 실험도시- 알코산티/ 학원(대학)도시- 애버마리아

- 1부 : 개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켈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앨레모스 -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 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담)을 위한 배우도시 볼더시티 - 2012년 1월호
-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의 종은 선례지-섬머린 - 2012년 2월호
- 7부 : 테마파크 배우 주거단지 - 셀러브레이션/ 골프장 중심의 데시벨 제로(O) 도시-시사이드- 2012년 3월호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1년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사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 Community of Arcosanti

알코산티(Community of Arcosanti)는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중부 피닉스시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110.0km, 해발 약 1,13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다. 애버마리아(Community of Ave Maria)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남서쪽 콜리어(Collier)카운티 중앙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케이프코럴(Cape Coral)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0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알코산티(Community of Arcosanti)

미국 전위건축가의 한 사람인 파올로 솔레리<sup>(1)</sup>가 계획하고 개발한 대표적인 실험도시(experimental city)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중부 피닉스시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110.0km, 해발 약 1,13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다.

솔레리가 아르코로지<sup>(2)</sup> 개념을 적용하여 지구의 파괴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증명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알코산티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계획면적은 약 16.0km<sup>2</sup>이며, 이 중 0.1km<sup>2</sup>가 개발되었다.
- ② 도시 전체를 사람과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 다목적 건축물, 태양열에 의한 조명·냉난방, 건설재료 등에 첨단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계획인구는 약 3천 명~6천 명(약 70~160여 명의 학생도 포함)이었다.
- ③ 오늘날 반원형 평면에 돌 형태의 방울자센터(4층 규모는 태양열에 의해 냉난방이 완벽하게 제어되며, 공동주택·극장·수영장·복합사무실·교육 및 문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 ④ 즉, 대규모 온실 안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것과 같으며, 최고의 사생활 보장과 최대한 복합적이고 기계적인 미래의 토지이용을 보여주고 있다.

솔레리의 도시계획 방식에 많은 비난도 있지만 완벽하게 설계된 최첨단 도시인 이곳에는 매년 약 5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5주간 이곳에서 직접 생활하며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솔레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건축가인 존 제르디<sup>(3)</sup>가 이 사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애버마리아 기본계획도

- (1) 솔레리 : Paolo Soleri(1919년~). 이탈리아 북서부 프랑스와 접한 피에몬테주 중서부에 위치한 주도인 토리노에서 태어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 미국의 전위건축가의 한 사람이다. 1947년부터 약 2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함께 연구하였으며 이후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1956년 애리조나주 남서부 스코트데일시에 정주하게 되었다. 1970년 알코산티를 위해 비영리 교육재단인 코산티재단(Cosanti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이 재단의 주요한 프로젝트가 실험도시 건설사업이었다. 그는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건축대학에서 유명한 강사였고 2008에는 디자인상(National Design Award)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받았으며 그의 철학과 작품은 같은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 아르코로지 : Arcology, 솔레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건축에 생태학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계획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복합성, 소형화, 지속성 개념을 담고 있다.
- (3) 제르디 : Jon Jerde, 캘리포니아주 베니스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로 혁신적인 볼 설계와 실험건축가로 유명하다. 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많은 볼과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알코산티 전경



#### 애버마리아(Community of Ave Maria)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남서쪽 콜리어(Collier)카운티 중앙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케이프코럴(Cape Coral)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중심의 신도시(planned collage town)이다. 오늘날 이 신도시는 개발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교 재단(Ave Maria Foundation)과 지방정부 및 지도자들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
- ② 도시의 핵은 애버마리아대학교<sup>(1)</sup>이다.
- ③ 계획인구는 약 8천 명으로 주민 약 3천 명, 학생 약 5천 명 수용을 목표로 하였다.
- ④ 당시 총장<sup>(2)</sup>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BBC<sup>(3)</sup>에서 개발하였다.

- (1) 애버마리아대학교 : 2003년 개교한 기독교 계열의 사립대학교로 재학생은 약 450명이며, 신도시 건설과 함께 2007년 정원을 충원하여 개교하였다.
- (2) 총장 : Thomas Stephen Monaghan(1937년~). 미국 중북부 미시간주 앤아버시에서 태어난 사업가이며 학교 재단을 설립하였다.
- (3) BEC : Barron Collier Companies, 사주인 배론 콜리어(Barron Gill Collier/1873~1939년)가 설립한 건설 회사이다. 배론 콜리어는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 펠릭스시에서 태어난 광고업자·부동산개발업자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건축과 도시철학\_ 4부

## >> 시민참여로서의 창조도시와 건축

- 1부 : 창조도시에서의 건축의 가치 - 2012년 1월호
- 2부 : 현대건축의 가치관 변화와 혼돈 - 2012년 2월호
- 3부 : 도시의 공공성과 건축 - 2012년 3월호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EOO 도시건축 연구소장  
 ss@sonshin@dream.wiz.com

2012년 1월호부터 '건축과 도시철학'이라는 지면을 개설하여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의 원고를 4회 기획하였다. 다음 호에는 '전통건축'이란 주제로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의 원고가 게재될 예정이다.

현대都市는 절대자가 도시를 혼자의 머릿속에 담고 정리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졌다. 몇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복잡한 생활에 대응하는 광대한 정보를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도시에 사는 여러 사람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시민참여, 주민참여로서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은 필수과정이 된다.

창조적인 도시계획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환경의 모든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창조하는 골격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과정은 다음 단계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도시의 창조는 공공계획만으로 완성되는 작업이기 보다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창조하고 건축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완성되어 간다. 관련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창조하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

이상적인 창조도시의 이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수 많은 민간건축이 이를 실천해 간다. 따라서 민간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건축주와 건축가가 있고, 도시의 공공부분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수요자로서 섬세하게 평가하는 평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시의 완성단계의 주역들은 계획가들의 이상을 바탕으로 두고 시민들이 완성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도시문제 세세하게 파악하기

현대都市는 절대자가 도시를 혼자의 머릿속에 담고 정리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졌다. 몇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복잡한 생활에 대응하는 광대한 정보를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도시에 사는 여러 사람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시민참여, 주민참여로서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은 필수과정이 된다. 이를 전문가들이 하는 과정을 사용후 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 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의 평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창조적업의 기초자료가 된다.

### 주민 제안/사용자 요구

주민제안은 소비자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요구와 제안을 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오랫동안 무제적에 대한 해결을 다른 사람보다 밀도있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내는 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인식이 강점이다. 이러한 체험에서 나오는 실감형 요구와 제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들이 주관적인 측면이 동시에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관적인 요구와 제안은 그 자체 문제인식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도시의 다른 지역 혹은 사안과의 우선 순위,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주민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은 주민을 스스로 예산을 동원하기보다는 공공사업으로 도출하여 지방정부 등에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 주민참여의 공공성

창조도시를 논의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계획가 공공의 계획과 행정이 세심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 유용한 의사결정과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전체의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섬세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상적인 목표를 완성하는 데에 공공성을 가지게 될 때에 참여의 가치가 발휘된다. 창조도시의 공공성은 창조적인 제안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건설하고 창조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중에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이 소요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많을 수 있어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데에는 실천단계에서 주민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 주민참여와 의사결정과정

주민참여가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주민참여라는 명분하에 공공의 입장을 벗어난 이익단체 이익집단의 요구에 이용되어지는 않는지, 주민참여의 목표와 모두의 공동선을 위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은 중요하다. 흔히, 사업의 결과를 정해놓고 주민참여를 위장하는 진행과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것도 현실이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행정단계와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결정된 계획안으로 둔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거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된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전문가의 역할과 관계되는 주민들의 참여,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사소통은 충분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인공구조물로 만들어진 담장은 대부분 식막하다. 이미 만들어진 식막한 담장에 담쟁이넝쿨을 조성하여 생태환경으로 바꾸었다. 각각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활동은 그 집단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생태적 환경으로 재창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평지붕이 많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다. 부족한 대지면적에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붕의 열성효과를 줄이고, 보온효과를 얻으며 생태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그리고 도시를 새로운 환경으로 창조시켜 간다.

###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주민참여가 필요

주민참여의 장점중의 하나는 사용자가 실감하는 구체성에 있다. 반대로 부족하기 쉬운 점은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성, 공공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혹은 주민들의 욕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이익집단의 욕구로 분출되기도 한다. 도시에 버스터미널, 철도역 그리고 공항 등은 도시의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이를 유치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전과 이전을 거듭하는 과정으로 발전 또는 바꾸어 왔다. 성장과정은 변화를 수반한다. 도시의 성장의 완성정도,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가치판단이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창조적인 도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도시의 흔적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만을 지향하는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건축과 도시철학' 원고를 연재해 주신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지는 자동차문화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좁은 골목에 면하여 주차전쟁지역이다. 각각의 주택소유자들이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참여한다면 주민스스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진다.



도쿄의 세타가와구 가타가와천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하천을 복원하여 그 지역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회복한 사례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도입 및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계획되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00-1번지(現 청사 철거 후 신축)에 총사업비 1,810백만원으로 건립되며 설계경기 결과 당선작은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최보은 건축사가 우수한 제이엔케이 건축사사무소 정영법 건축사가 가작은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 명단 : 정광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서로) 이광현 건축사(동신 건축사사무소) 윤대환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철우 교수(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윤재철 공무원(광주광역시 건축주래과) 조철희 기술사(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 당선작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안길전 + 최보은 건축사
- 우수작 제이엔케이 건축사사무소\_ 정영법 건축사
- 가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 이주경 건축사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 당선작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_ 안길전 + 최보은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00-1번지  
 대지면적 : 1,045㎡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절대정화구역  
 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연면적 : 1,169.46㎡  
 건축면적 : 404.39㎡  
 건폐율 : 38.70%  
 용적률 : 111.91%  
 층수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 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고밀도목재패널, 외단열시스템



### 우수작

제이엔케이 건축사사무소\_ 정영법 건축사

건축면적 : 403.25㎡  
 연면적 : 1,100.82㎡  
 건폐율 : 38.59%  
 용적율 : 105.34%

층수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알루미늄복합판넬, THK18 복층유리, 친환경합성목재 등



### 가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 이주경 건축사

건축면적 : 403.99㎡  
 연면적 : 1,104.72㎡  
 건폐율 : 38.65%  
 용적율 : 105.71%

층수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리멘조  
 외부 마감 : 징크패널, 스프릿블럭, THK24 로이 복층유리 등





# 건축사는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합니다. \_ 장영삼 건축사

멋과 풍류가 흐르는 도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만난 장영삼 건축사(건이 건축사사무소). 그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각인시켜 준 건 약속을 통해 서로 마주치 눈매와 맞잡은 손이었다. 눈매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어떠한 흔들림 없이 이성적인 감각을 유지하게 만드는 듯 했고 그의 가칠고 약간 불편해 보이는 듯한 손은 지금까지 건축 인생을 살아오며 겪은 고난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그의 사무실 응접공간에 앉자마자 기자로서의 궁금함을 감출 수 없어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

## 건축인이 되고픈 한 청년의 시련, 그리고 다시 찾은 꿈

기자(이하 기) : 건축사님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다친 손가락으로 건축설계자로서의 꿈을 유지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리라 봅니다.

장영삼 건축사(이하 장) : 방향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제가 건축설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건 어릴 적 고모 집에 놀러가 보게 된 한 멋진 건축물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뇌리에 생생한데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어른들께 물었고 건축공부를 하면 저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건축설계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고 고등학교때 건축과를 지원하여 본격적인 건축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비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손가락을 다쳐 인생을 포기하다 시피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인생 막장 길을 걷게 되며 건축설계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력 포기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꿈속에 동아리에서 선배들에게 맞으며 배우던 건축설계 모습이 일주일간 되풀이 되었고 '이건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굳게 마음을 다지며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 건축과에 입학과 졸업을 하였고, 그 후에도 현재까지 건축설계에 대한 저의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게 되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것은 피땀 흘린 노력도 있었지만 그에게 지독한(?)가르침을 준 한 스승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한다.

기 : 건축사님께서는 지독한(?) 분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장 : (웃음) '지독하다' 할만하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취업생활 2년차 되는 해에 배병길 건축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 많은 작품활동을 하고 계셨고 건축디자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주택 한 작품에 스터디 모형을 12번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참문하지만 변경되어도 다시 모형을 제작했어야 하니 숙된말로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적당히 하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으니...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건축의 재미를 가르쳐주신 배병길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70-21-22 다가구

##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곁에서 살아간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고 한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건축설계 인생에서 자신만의 건축철학을 한마디로 정의내리면 '물음표(?)와 느낌표(!)이다'라고 했다.

기 :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철학은?

장 : 건축의 철학까지 논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저 건축사의 한사람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길 뿐입니다.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곁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음표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본 따서 만든 문장부호라고 합니다. 느낌표는 뭔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추구하다가 원하던 바를 찾았을 때 기뻐서 펄쩍 뛰는 사람의 모습을 본 따서 만든 문장부호라고 합니다. 물음이 감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듯이 건축 또한 자기만의 건축을 통해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선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 :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장 : 현재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신 분들에게는 목욕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착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 후배들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기도.

기 : 선,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 얼마전 후배들과 술 한 잔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사는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역에 느낌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승이 진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듯이 우리도 자기만의 건축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기 :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 이제야 니만의 건축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를 찾는 건축주에게 보다 좋은 건축을 선물해주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겠지요. 건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접았다 싶으면 저만치 멀어져 가고, 또 다가가면 한걸음 나아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떠나야겠지요.

장영삼 건축사는 인터뷰 말미에 그동안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한 조각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항상 마음 속 깊이 희망을 품고 살아 왔으며 그 기쁨을 맛보는 현재 이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의 또다른 기쁨이 될 느낌표(!)가 어떠한 모습일지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취재·정리 : 양우현 건축사기자 bhi493@chol.com



전북 / 건이건축사사무소 장영삼 건축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7-1 상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5지구 1307-1-2 다가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02-2 단독주택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은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의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공 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 1면
- 구 독 료 입 금 계 좌
-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Tel. 062)521-0025~6 Fax.062)528-0026



# 스페인, 포르투갈 건축기행\_ 2부

우리의 여행은 여행하기보다 그야말로 견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기간 내내 매일 새벽에 잠을 깨어 밤늦은 시간에 취침할 수 있었고, 하루에 6,7군데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잠시의 안식이 없었다. 12일 내내 휴식의 시간은 없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사진 찍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자 눈과 다리를 부렸던 듯하다.

신영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사만, 대표  
saran11m@naver.com



스페인을 떠올리면 첫 번째로 그리운 것은 푸르고 푸른 하늘이다. 맑고 푸르고 높은 하늘 너무나 깨끗하고 푸르렀던 하늘과 맑은 햇빛에 반짝이던 하얀 벽... 지중해성 기후가 베풀어준 아름다운 풍경은 여행 내내 우리를 맑게 하였다.



푸른하늘과 흰 대리석이 만난 CMC CENTER

## 마드리드 - 피카소, 고야, 벨라스케스

여행의 한 가운데 날, 드디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입성하였다. 마드리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식 건축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브르봉 왕조의 왕궁은 부유한 왕조가 마음껏 누렸던 사치와 치장. 그것이 불러온 결과물들을 느낄 수 있었다. 개개의 방들은 각각의 테마로 6면이 치장되어 있었다. 당시 보석에 존하였던 거울의 방, 도자기로 꾸며진 방, 중국의 신비함이 가득한 동양적인 방 등은 왕궁이 누릴 수 있는 호사를 가능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레이나소피아 미술관은 기존의 국립병원을 재생하고, 증축부분은 장누벨이 설계한 건축물로 신구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미술관은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게르니카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가 아무런 예고 없이 독일군의 갑작스런 폭격으로 인해 민간인 1,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작품화한 것으로, 전쟁의 아مان성을 폭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신, 구가 조립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마드리드

마드리드에서는 마음껏 예술작품에 폭 빠질 수 있는 날이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피카소, 미로, 날리, 장누벨을 만나, 그들의 예술적 감수성에 폭 파묻히기도 전에 우리는 곧 유럽 4대 미술관이라 불리는 프라도 미술관을 향하였다. 프라도 미술관은 지친 다리를 휴식시킬만한 충분한 흥분이 있었다. 너무나 많은 보아야 할 것과 거쳐야 할 곳들로 일행은 꽤나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미술관 벽면에 전시되어 있는 위대한 작품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이란... 프라도에서 잠시 단체 여행이 후회되었다. 개인으로 왔다면 작품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고야의 작품들,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알브레히트 뒤러 등등 그들의 작품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준다. 명화란 우리에게 속삭인다. 우리가 그 작품의 의도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느낌으로 다가온다.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어느 하나에서 감동을 받는다면 그 것은 대단한 경험일 것이다. 프라도에서 너무

도 많은 황홀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벨라스케스와 뒤러, 고야의 작품은 다시금 프라도로 발길을 내디디고 싶은 유혹을 안겨준다.

## 빌바오 - 구겐하임미술관

마드리드에서 빌바오까지는 4시간여의 장거리 이동 끝에 도착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북부로 향하다 보니 처음으로 눈 쌓인 피레네 산맥을 볼 수 있었다. 유럽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2시간에 한번은

꼭 운전자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버스 운전사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규칙이 있어 장거리 여행 시는 꼭 중간에 15분, 30분을 망망한 휴게소에서 쉬어야 했다. 규칙이라는 게 익숙치 않을 때는 거부감이 있지만, 때론 의외의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망망한 휴게소에서 서성임이 뜻밖의 여유로움을 선물해 주었으니...

지루한 장거리 이동 중에도 도시재생의 신화 빌바오를 간다는 것은 처지려는 어깨를 일깨웠다. 빌바오 이정표만으로도 마음은 달뻗으며, 퇴락한 철강도시를 단 하나의 건물 구겐하임 미술관만으로 낸 100만명(우리나라를 찾는 연관광객수는 약8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빌바오.. 건축물로 인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 건축인이라면 누구나 설렘 수밖에 없는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도착하기 10분전부터 나는 카메라를 쥘진하였다. 이 도시는 어떠한 도시인 것인가? 도대체 구겐하임 미술관은 무엇인가? 프랑크 게리는 도시와 미술관과 사람들을 어떻게 결합시켰는가? 드디어 구겐하임 미술관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물고기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켰다는 징크패널의 반짝임, 건축물인지 구조물인지 구별이 어려운 과한 입면, 장미꽃잎을 연상케 하는 매스들의 조합.. 이것이 그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이구나.. 건축물의 유명성으로 엄청난 관광객을 유입하여 세계 각 도시의 도시 재생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술관.. 미술관을 외부에서 보았을 때나 내부의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내내 머리를 맴돌았던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였다.

구겐하임미술관은 현대미술을 주로 전시하는 컨셉인 건지 내부 전시품들은 마치 우리의 비엔날레 전시물을 연상케 하였다. 미술관이지만 아주 유명한 예술품은 없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꼭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7일을 설계 하였던 구겐하임 미술관은 유명세만큼의 매력은 느끼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건축가의 힘을 보여준 프랑크 게리의 노고와 새로운 건축물로의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저력엔 가히 존경



개/ 프란시스코 고야, 프라도 미술관 (출처) 개 (The Dog) 네이비 백과사전



구겐하임 미술관, 프랑크 게리, 빌바오 1997 건립

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바르셀로나 - 가우디와 현대건축의 메카

게리와 빌바오의 여운을 한켠에 묻은 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도시 바르셀로나로 향하였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매일 매일 태양은 새롭게 떠오른다. 어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새로운 문물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킨다.

바르셀로나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성가적성당, 카사밀라, 구엘공원 등 가우디의 도시라 여길 만큼의 작품들을 곳곳에 품고 있었다. 가우디는 마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처럼 기인의 근성이 있었다. 한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약간의 관심을 가진다면 금세 가우디의 작품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우디가 사망하기 사용하였다 성가적성당의 작업실, 가우디가 구조계산을 위해 실과 모래주머니, 거울을 이용해 작업했던 내용들은 그의 건축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할 수 있었고 그의 위대함을 충분한 귀감을 주었다.



가우디가 성가적성당의 구조 계산을 위해 실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만든 모형

또 한편으로 바르셀로나는 현대건축물들의 메카라 부를 만큼 수많은 현대건축작품들이 있었다.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독일 파빌리온은 모든 사진이 화보가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건축요소들과 간결함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리차드 마이어의 현대미술관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순백색의 건축물에서 아머아마한 디테일의 완성도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마치 조각품을 연상케하는 필요와 절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고를 각성시켰다. 한편으로 이러한 팀구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할까 사유해 보았다.



현대미술관, 리차드 마이어, 1995,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장누벨의 워터 빌딩, 도요이토의 포르타 피라 호텔, 우유장 리노베이션 등등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어 귀국을 아쉽게 하였다. 아쉬움 탓인지 가로의 풍경과 건축물들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끝없는 새로움을 흠뻑 느끼고 싶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은 필자에게 있어서는 첫 유럽 여행이었다. 8시간의 시차, 13시간의 비행시간을 가로질러 12일의 시간을 여행에 온전히 몰입하였다. 여행을 마친 후의 헌입인은 또다시 그것을 만회하느라 한 달여의 시간을 실세없이 뛰어다녔다. 그럼에도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주저없이 떠날 듯하다. 다만 너무나 빠듯한 일정, 짝 짜여진 일정으로 인해 교감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말간산보다는 그 산을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테니..

함께한 오군회 회원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건축물탐방기 ·

## 사람과 건축의 교감을 나누다.

김태웅 학생기자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 즈음 광주역 앞에서 집결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버스에 올라탔다. 각기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마주하자니 어색하기 그지없었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축 전공 학생들끼리 공간대가 형성되어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건축물의 환경이 건축물에 접하고 있는, 또는 거주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건축사는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항상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다.

평소 공감하지 못한 말이었으나 전주대학교 스타센터를 견학하는 동안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목표로 설계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스타센터는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목표였다. 토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역동적이며 활기가 넘쳐보였다. 그리고 웬지 모르게 학생들의 얼굴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였다. 스타센터의 디자인의 목표가 성공한 것 같았다.

Level이 각기 다른 4개의 진입공간을 두어 사방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스타센터는 Level의 차이를 잘 소화하여 주변에 다른 건물과 조화롭게 스카이라인을 유지했다. 그 때문인지 제법 큰 규모의 건축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하다는 느낌을 느꼈다.

스타센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걸을 때는 마치 모태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안락했으며, 숲 속 나뭇잎 사이로 내려찍는 은은한 태양빛처럼 산뜻한 기분이 들었다.

### 한해 3~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탐방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한해 3~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전주한옥마을'로 향했다. 전주한옥마을 오목대에 올라 한옥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기와가 얹어있는 지붕들의 점들이 모여 경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막힌 가슴이 뻥 뚫린 듯 평온한 마음을 느꼈다. '100년 전 옛 선비들도 이곳에 올라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였다.

보행의 복잡함도 없었다. 서울 인사동 거리를 거닐다 보면 좁은 길에 차가 진입하여 보행이 불편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에 비해 전주한옥마을은 주말에 차 없는 도로를 시행하여 보행자는 쾌적하게 보도에 나오는 풀길을 따라 경쾌하게 보행할 수 있었다.

### 손꼽히는 아름다운 성당 '전동성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중 하나로 꼽히는 전동성당은 영화 '악삭'에서 남주 주인공이 슬픈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전동성당은 중앙 종탑을 중심으로 작은 종탑들을 배치한 상부의 조화로 웅장하며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설계자는 '프와넬' 신부였는데 명동성당의 마무리 설계를 하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래서인지 명동성당과 비슷한 형태의 전동성당에 포근함을 느꼈나 보다.

비유하자면 마치 명동성당은 아버지 같다면 전동성당은 어머니와 같은 느낌이랄까?

### 건축물 자체가 '한지'인, '한지산업지원센터'



마지막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본 순간 "애 벽에 한지를 붙여 놓은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지가 강한 건축물이었다.

건축물의 홀로 들어서자 청사초롱 같은 조명이 은은한 빛을 발산하며 매달려 있어서 인지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중정을 Play Zone으로, 옥상정원 등과 같이 아이들과 연구진을 위한 휴게장소를 배치한 것이 흥미로웠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가 적었던 나는, 이번 광주건축문화포럼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정보의 공유와 공감을 느껴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타 학교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각자의 학교 소식 및 문화를 교류하여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길 기대해본다.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도 MT개최

-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화순 안양산 휴양림서 진행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지난 3월 15부터 16일까지 안양산 휴양림에서 MT를 개최하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휴양림에서 짐을 풀고 학우들과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위한 체육대회를 하였고 저녁에는 각각의 조원들이 만든 음식 경연 대회와 신입생 장기 자랑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남자영 학생기자 1128866@hanmail.net

### 광주·성남·전북지역에서 산문 건축문화 **사랑 건축사 편집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구분 : 건축사 편집위원
- 모집인원 : 전북지역 편집위원(1인~2인)
- 모집기간 : 2012. 4. 10(화) ~ 4. 30(일) 오후 6시까지
- 지원자격 : 해당 지역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 지원방법 : E-mail 접수 : 이력서 메일 (gjkira@empal.com) 전송 후 전화 확인
- 문 의 : Tel.062)521-0025~6 Fax.062)528-0026

·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건축물탐방기 ·

## 건축이란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서 한모금 물과 같았던 탐방...

한선영 사원  
The.a 건축사사무소

봄기운이 돌던 토요일 아침, 전북권역 전주 건축탐방을 위해 전주로 향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전주대학교 EM생활관과 스타센터였다. 첫 눈에도 웅장하고 기하학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센터는, 독특한 입면과 넓은 중앙 광장으로 하여금 눈길을 끌었다.

건물 내부 도서관의 모습은 많은 기둥이 노출되어있었는데,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기둥도 하나의 디자인 오브제로 작용하여 기존의 도서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듯 했다.

전주에서 유명한 음식인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도착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다. 처음 방문한 한옥마을을 내려다 본 모습은 무심사 속에서의 실사를 보는 듯 재밌는 풍경을 자아냈다. 조밀하게 한옥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 크고 작은 골목길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한 듯 느껴졌다.

한옥마을의 골목길을 거닐며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담장과 문이었다. 문의 형태도 흥미로웠지만 달아있는 문 뒤로는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은 과거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장들을 많이 품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답사하고 모든 답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나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이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은 건축사들의 몫이 아닐까?란 생각을 더 깊게 해보게 되었다.

건축이라는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나에게 이번 답사가 한모금의 물과 같은 역할이 되었길 바란다.



전주대학교스타센터 도서관내부 모습



전주 한옥마을 내 문 모습

## 전북대학교 건축설계 동아리, 앞으로는?

- 건축공학으로 통합되면서 신입생들이 설계와 공모전에 관심이 저조하여 걱정



E.A전시모습



NA 홍보 마스터

현재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에는 설계 동아리가 두 곳 있다. 바로 E.A(Enjoy Architecture)와 N.A(Naked Architects)이다. 이 두 동아리는 건축 '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활동 모두가 '건축을 즐기자'와 '시작하는 건축학도들의 건축 스테디'로 조금 차이가 있다. 두 동아리는 전북대학교에 건축학과(5년제)가 생긴 이후 결성되었고, 서로가 선의의 라이벌로서 10년째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나누어져 교육을 받은 체계에서 건축공학으로 통합되면서 건축설계동아리의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 기존의 커리큘럼과 현재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져서 동아리의 활동 방향이 애매해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입생이 동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대학교에 5년제 건축학과가 사라지기 전 기존의(건축학전공)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이다 보니 같은 건축과 학생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단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건축공학에서는 설계수업이 전공 선택 과목이어서 듣지 않는 저학년 학생들은 설계와 공모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중하다 보니 대학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후배간의 설계 및 스테디를 통한 멘토링과 공모전등의 학업적인 부분과 M.T나 멤버들 간의 술자리 등 끈끈한 교류관계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을 경험하지 않고 20대를 보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난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여름이 지난 3월 전북대학교 공대1호관에서 건축설계동아리 E.A의 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장에는 그동안 동아리 멤버들이 학교와 공모전에서 설계했던 작품들과 패널을 전시했고, 더불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시회에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다과회와 함께 축하의 말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동아리 N.A에서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입생 강의를 방문하여 동아리를 홍보하고 포스터와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각 동아리에서는 건축공학과 소속의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갈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두현정 학생기자 dh-jh@ghk@hanmail.net



## 광주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 개최한다

- 오는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진행할 예정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준비를 위한 발대식을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강성의 대표장을 비롯하여 대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건축사대회 홍보영상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 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건축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 만여 건축사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출발점이 될 이번 발대식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 건축문화사랑 주관,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 개최

- 전북권역 건축물 탐방 진행, 첫 회 주관행사에 많은 호응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고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주관한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이 지난 3월 31일 일반시민 및 건축사, 교수, 공무원, 학생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본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주관행사로 지난 2월부터 계획되었으며 한달간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신청마감 후에도 접수하려는 전화가 쇄도하는 등 개최 당일까지 큰 호응이 이어졌다.

탐방대상 건축물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EM생활관, 한자산업지원센터 등 전북건축문화상을 수상한 작품들과 전주한옥마을을 답사하였다.

한편 본가마다 진행될 광주건축문화포럼의 다음 탐방지는 부산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영화 '말하는 건축가' 정재은 감독, 광주 시민들과 대화하다

- 나무심는 건축인 포럼 일환으로 광주극장에서 영화관람 후 대화시간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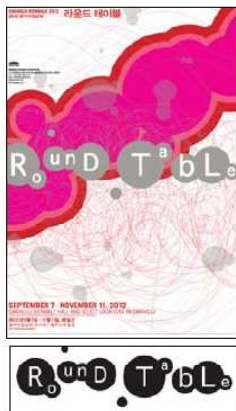
故 정기용 건축사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영화 '말하는 건축가'가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2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이에 나무심는 건축인에서는 지난 4월 6일 광주극장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영화상영 후 일반시민들과 정재은 감독과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재은 감독은 이 자리에서 "이 영화는故 정기용 선생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건축은 문화다'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고, 돌아가시기 전 꿈에서까지 '나무를 심는 문화'를 형성하는 건축인 양성 꿈'을 꾸셨으며 앞으로의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이어받아 건축문화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히 하셨으며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영화 '말하는 건축가'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 상영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3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제9회 광주비엔날레 심볼, 로고 등 티 발표

-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일본 디자이너 테라이 게이지가 작업



올해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제9회 광주비엔날레의 심볼, 로고와 포스터 등 기본 E(Event Identity) 시스템이 확정 발표되었다.

(재)광주비엔날레측은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 E 시스템이 확정되었음을 밝히며,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일본 디자이너 '테라이 게이'가 올해 주제어인 '라운드 테이블'을 다양한 크기의 원과 물결 패턴을 통해 형상화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테라이 게이지는 "올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어인 '라운드 테이블'을 미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제어의 개념을 보다 강조하여 디자인했다" 고 말했다.

테라이 게이지는 시각예술, 패션 디자인, 복디자이너 등 다양한 장르의 개성 있고 독특한 그래픽 작업으로 잘 알려진 디자이너로 '테라이 게이' 디자인 회사 의 대표작을 맡고 있으며, 소니, 요지 아미모토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확정된 E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2년도 광주비엔날레의 홍보인쇄물 및 세부 디자인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 지난 3월 30일, 전주코아리베라 호텔 백제홀에서 진행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코아리베라 호텔 백제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수지결산(안)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전주시건축사회 김남중 회장은 회원들 대표하여 건축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법규 개선 등에 힘써 온 전주시청 주택과 이창현 씨와, 덕지구청 건축과 이광환, 완산구청 건축과 국승철 씨에서 감사장을 전달하였으며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경숙 전북지부장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재)광주비엔날레 재단 2012 광주폴리 시민보고회 개최

- 지역작가들 역량제고 위해 세계적인 작가와 1+1방식의 공동수행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지난 3월 29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2012 광주폴리 시민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승효상 건축사와 2012 광주폴리프로젝트 큐레이터 천익영 교수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시민, 지역 건축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광주폴리 추진 현황과 2012년도 광주폴리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거쳐, 열린 시민들의 의견

제기와 관계자 답변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질문 시간에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작가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작가와 지역작가가 1+1방식으로 함께 프로젝트 진행, 폴리공모에 대한 심사방식으로 시민참여 방식 도입, 작년 동구지역에 설치했던 폴리를 올리는 광주전역으로 확산해 설치하는 방안 등 참석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밀착형 소규모 조형물 10개 내외가 광주 도심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광주폴리 및 전시기획자를 선임하고 5월 중 참여 작가 10여명이 선정된다.

또 6월 대시민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폴리 설계 및 시공이 진행돼 9월 완공할 계획이다.

## 전국 시·도 건축사회장 협의회 경기도서 회의개최

- 판문점 JSA 지역 등 안보건축, 위문금 전달하기도 해



전국 시·도 건축사회장 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판문점과 헤이리 일원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 일환으로 임진각 안보건축을 진행하였으며 회장 협의회를 대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이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고양시 최성 시장과 2012 고양세계꽃박람회 관련 내용으로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 서재형 건축사, 진도 금골권역 종합개발사업 총괄계획가로 선정

- 농식품부가 선정한 총괄계획가 7명 중 건축사로서는 유일하게 뽑혀



진도군 총괄계획가로 선정된 서재형 건축사

본지 편집인 서재형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선가) 농산어촌개발 총괄계획가로 선정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15일엔 총괄계획가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65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총 7개 시범사업지구에 참여할 총괄계획가를 3월 9일 발표했다. 건축, 조경, 환경, 농어촌개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총괄계획가는 대학 교수 5명, 민간연구소 소속 1명, 건축사 1명이다. 현직 건축사로서 유일하게 선정된 서재형 건축사는 지난 3월 13일 진도군으로부터 금골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총괄계획가로 위촉되었다.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근거한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일반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에 애정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함으로써 환경,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농촌다움을 살린 특색 있는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골 권역내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타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재형 건축사는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인 전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 1년 동안은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황파악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광주 건축계 동정

- \*입회**
  - 이원길 건축사 / 이원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282
- \*전입**
  - 정충기 건축사 / (주)한길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서구 쌍촌동 876-14
- \*폐업**
  - 이관욱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 \*변경(대표건축사 변경)**
  - (주)건축사사무소 영업, 필 / 정태호 건축사 → 이관욱 건축사
- \*변경(사무소명 변경)**
  - 이영곤 건축사 / 나영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2층)
  - 최 윤 건축사 / 에스포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백운동 624-3번지 (1층)
- \*부고**
  - 최순유 건축사 / (주)평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3월 13일 (화)
  - 정재경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 사무소 / 모친상 - 3월 18일 (일)

###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최미선 건축사 / MS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90-8
  - 장동석 건축사 / 다빈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2-6번지 (3층)
  - 김수진 건축사 (주)신한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70 (2층) 도룡로
- \*변경(대표건축사 변경)**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이상돈 건축사 → 박중윤 건축사
- \*변경(사무소명 변경)**
  - 송경규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 김중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AT → 건축사사무소 칸
- \*변경(소재지 변경)**
  - 김윤관 건축사 / 모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48-10
  - 송은정 건축사 이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70-7
  - 이준호 건축사 / 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효자동2가 1155-3
- \*결혼**
  - 문남영 건축사 / 맥 건축사사무소 / 장남 - 4월 14일 (토) 11시 군산 아리움 웨딩 1층 행복실
  - 이병곤 건축사 / 다은 건축사사무소 / 장남 - 4월 14일 (토) 12시 군산 궁전웨딩홀 2층 사랑홀
- \*부고**
  - 최진호 건축사 / 우창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3월 19일 (월)
  - 이흥구 건축사 / 이레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3월 30일 (금)
- \*기타**
  - 엄주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간 / 제8회 전라북도서예대전 대상 수상 / 5월 12일 시상식 및 전시예정

###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중헌 / 전남 광양시 중마로 318
- \*변경(소재지 변경)**
  - 문경숙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63
  - 이남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인&성산/ 전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2012
  - 이환욱 건축사 / 동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32
  - 정용재 건축사 / 태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32
  - 변형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전남 여수시 시청서 3길 7-9
  - 구덕희 건축사 / 피엔에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65-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통합 개정 (2012. 3.22)

-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3.22)
- 주요 개정내용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통합개편 (원기계약및예평가격작성요령,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수의계약운영요령, 종합계약운영요령, 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낙찰자 결정기준 통합개편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설계공모운영요령)
  - 100억원 미만 공사 자산회전을 삭제 기술자 보수상향 평가 확대
  - 10억원 미만 공사 신용평가 완화, 3억원 미만 복합공종 전문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설
  - 2억원 미만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 경영상태 심사서류 제출 간소화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명확화, 신용평가자료 발급기간 확대
  - 디지털 관련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신설
  - 공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 확인, 특허·신기술의 유사기술 비교 및 사전협의 강화
  - 용역·물품계약의 국산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확대
  - 결정사유 통합 등 수의계약제도 개선, 원가계산·원가검토 용역기관 부정행위 제재 등
- 시행일 : 2012. 4. 2.
- ※ 문의 : 입찰 적격심사 (02-2100-3934,3992), 선급·대가지급, 수의계약 (02-2100-3897) 원가계산, 계약심사, 계약금액조정, 실비·사후정산 등 (02-2100-3908) 주계약사, 협상계약, 설계공모 (02-2100-3909)

###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관련 국토부 지침 알림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의 적용해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12.23 기준'으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공동주택이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지침 시달일(2.23) 기준으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 적용 가능

- 나. 적용대상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심의 포함)를 신청한 경우
  -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건축심의 포함)을 신청한 경우 및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한 경우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2항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신청한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허가·승인·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안

1. 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대상 사업장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2. 주요내용  
가. 감리인의 자격, 배치기준, 감리교육, 감리대상 사업장 등 규정  
(1) 고급감리원과 일반감리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고사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석면이 함유된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장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743번, 744번, 745번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25일, 26일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유복근, 이성업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영현, 장관성, 이광영, 박상윤, 전경효, 박승호, 영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신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표 / 지 / 설 / 명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군산시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도시관광 활성화와 원도심재생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초이엔씨(주) 100만 원  
정 명 철 | (주)에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 50만 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료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기자판/표/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em-pa.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는 작가의 사진과 사주소명, 직책 및 역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난 내 건축주를 사랑한다!」

천경훈 건축사  
다들 건축사사무소



지금껏 「건축」이란 두 단어를 통해 많은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왔다. 각자의 삶속에 들어가 보아 체험도 해보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 표현도 해보고 때론 일부분의 성공과 실패를 거둬해 나가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만의 형태적 공간적 기준과 건축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내 머릿속에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애써 위안삼아 지름에 위었다.

건축에 대한 내 시작은 그리 원대한 포부도 큰 꿈도 없이 단지 고등학교 진로과정에서 우연찮게 선택되어진 건축과의 만남, 건축에 있어 설계의 존재가치 또한 알 턱이 없던 그런 시절 단지 '우연'과 '찰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만남이 주선되었다. 물론 서먹서먹한 만남이었을 것이다.(그때의 감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조금은 아쉽다) 그렇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알 수 없는 매력과 나만이 아는(?) 자신감, 투박했던 손에서 나온 섬세한 결과물, 2차원적 이미지를 통한 3차원적 결과물을 통해 내가 사는 집을 둘러보았고 길을 따라 다니면서 도시를 생각하게 되었다.

천재들의 작품을 통해 내가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수많은 습작과 다양한 건축양식과 건물형태를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건축적 Dilemma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실무를 접했고 실무생활 근10년을 Dilemma에 허우적거리면서 단지 빠른 손놀림과 후천적 습득을 통한 기술을 통해 엄청난 제도(?)를 해냈다. 그것에 단지 익숙해질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수많은 작업을 통해 가진 자의 건물과 그렇지 못한 자의 건물에 대한 구분할 능력이 생겼고 뭐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 없는 그 영역(그때 당시)의 존재만을 알아냈을 뿐이다.

이런 애매한 건축적 감정을 갖고 진짜 설계자로서 설계를 시작하였는데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건축을 함에 있어 통제 할 능력이 부족한건 물론이고, 땅도 주변을 둘러싼 자연 또는 건물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경제적 논리에 철두철미한 것도 아니어서 후회도 많았다. 하기도 싫었다. 풀이켜 생각해 보면 「건축」이란 놈을 만나 흔한 말로 개고생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내 결과물에 대해 주위의 찬사 또한 없었다. 힘들어도 했다. 그냥 했다. 딱히 할 게 없어서 쪽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건축을 더 알고 싶었고 더 알기 위해 시간과 발품을 팔았다.

그래서인가 건축을 시작한지 25년째!  
지금은 나의 달라진 건축 견해와 접근방식이 새롭게 싹 틔우고 있고 작은 설계를 통해 건축주와 또는 땅과 소통하면서 선을 수없이 긋고 있다. 물론 몇몇 설계는 아니지만 난 내 건축주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업자'에게 나와 건축주의 영역을 송두리째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건축주와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으로 건축주는 나를 더욱 더 신뢰하게 되어 존스럽지만 그들이 갖고 싶은 집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난 오늘도 건축주가 산 땅에서 자판기커피 한잔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오동나무 상여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온갖 모습으로 변신하던  
구름의 그림자가  
오동꽃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다

이승의 연을 감투라하는 동안  
오동꽃 위에 사뿐히 올라앉아 있는  
구름의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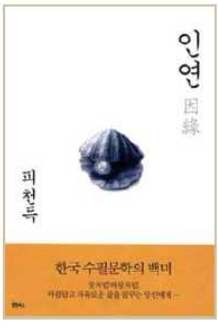
이승의 인연이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흘날리는 꽃잎을 따라  
흩어지기도 한다 눈물처럼

구름은 이제 나 되었다는 듯  
오동나무 북어두었던  
발목의 명주 끈을 풀고  
자조릿상여 타고 먼 길간다.



## 「인연」 저자 피천득 / 출판사 쌤터사

이경영 건축사  
라기 건축사사무소



어김없이 봄이 되면 생  
각나는 책이 있다.

책장에서 피천득 〈인연〉  
을 꺼내들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간다.

이 책은 긴 시를 읽어 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피천  
득 시인이 직접 마주 앉아  
귀가에 속삭이듯 옛날이야  
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80여편의 작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부터 삶의 풍경, 그리고 생각과 작은 이야기들을 소년의 감정으로 풀어내고 있다.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하면서 단아한 문체들.

수많은 화려한 기법이나 표현을 뒤로한 채 소박하면서도  
정감하고 청초한 느낌이랄까 할까?  
그래서인지 눈을 감으면 오래된 필름카메라의 렌즈사이  
로 보이는 모습들처럼 떠오른다.

어느덧 감성과 시간에 사로잡혀 나를 감싸는 신기한 책이다.  
매번 같은 공간, 같은 문구를 읽어도 설레이는 봄처럼 항  
상 설렘과 함께 새로운 의미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서상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는 그  
아이도 나이를 먹은 탓일까?  
특히 딸과의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코끝이 정해진다.  
술퍼서가 아니다. 눈과 내 마음이 조금은 잔잔해 지고 정  
신없는 무의미하게 보낸 하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숙연함  
이 느껴진다.

나의 아버지 또한 저런 마음이셨을까?

나 또한 저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은 자식과 함께 하는 부모의 마음  
은 어떠한 것일까?

그의 사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  
는 이들에게 삶의 무게에 갇혀 하루하루 답답한 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 조금은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자기 자신에  
게 선사하길 바란다.

이 봄, 여전히 내 머리 옆에 이 책을 놓아둔다.

그리워하면서 한번 만나고도 못 만나기도 하고  
인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 피천득 「인연」 중에서...



Olion canvas 105

### 바닷가의 추억

여름날 해변가에  
남겨진 추억을 그리며...

정원석 건축사작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인동화마을(석영택)사진

인동화마을(중요민속지표 제122호)은 풍산류  
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  
인 동성마을이며, 약가(瓦家)가와집 초가(草家)  
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마을 이름을 하회(阿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정  
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  
래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태극형·연화부수  
형·행주형에 일컬어지며,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였다

촬영자: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이경탁 건축사작



# 사진으로 보는 전남·전북 제46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 전남건축사회 제46회 정기총회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3월 20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디오선리조트 3층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전북건축사회 이성업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보고 및 의결사항에 앞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5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건축사자격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다.

기념행사 후 진행된 보고사항에서는 2011 회계년도 결산 감사보고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보고되었으며 3개의 부의안건 중 2011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고,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이사 4인(정종민-명인 건축사사무소, 이강근-(유)신연 건축사사무소, 이정심-가인 건축사사무소, 최세호-빛가람 건축사사무소)과 감사 1인(손병완-영우 건축사사무소)이 선출되었으며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6인(김정-대진 건축사사무소, 이항영-신도시 건축사사무소, 심우석-우성 건축사사무소, 탁기봉-(그룹)에스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유일, 김정현-건축사사무소 우진, 정영법-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이 선출되었다.



- ① 전남건축사회 제46회 정기총회가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소호동 디오선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② 본격적인 1부 행사에 앞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가 진행되었다.
- ③ 건축사 현장 낭독 순서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왼쪽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김용주 이사,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
- ④ 제46회 정기총회 개최사를 하고 있는 전남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 ⑤ 격려사를 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
- ⑥ 전라남도 도지사를 대신하여 축사를 하고 있는 전남도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 정근택 과장
- ⑦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으로부터 본협회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는 이강근 건축사((유)신연 건축사사무소)
- ⑧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김철홍 씨와 순천시 허가과 조준익 씨, 여수시 건축과 김성만 씨에게 전남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위한 행정지원과 건축사 위상제고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윤문곤 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⑨ 이날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이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능력위전회 위원인 이성업 건축사가 참석하여 2012년 5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건축사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 ⑩ 건축사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 동영상은 전남건축사회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며 시청하고 있다.

## 전북건축사회 제46회 정기총회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1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남건축사회 총회에 이어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건축문화사랑 공동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전남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또한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 대한민국건축대회 찬조금 전달식과 신입회원 소개, 임기만료 임원 기념품 전달, 본협회의 공로패 수여식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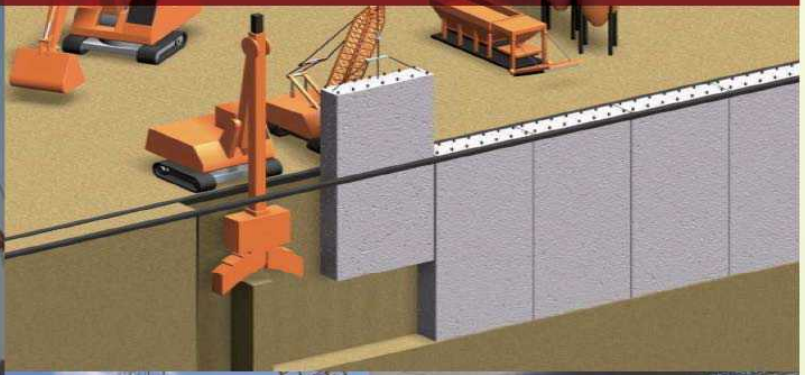
기념행사 후 3개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임원 선출의 건에서 감사에 이진희 건축사(세광 건축사사무소)를 유임하기로 하고 이사 및 대의원은 회장과 전임 회장단이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위임하였다.



- ① 전북건축사회 제46회 정기총회가 회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② 전북건축사회 이성업 회장이 총회 개최를 알리는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 ③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총회에 이어 전북 총회에도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이 참석하였다.
- ④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으로부터 본협회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는 김기수 건축사(CNS 건축사사무소)
- ⑤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받고 있는 문중백 건축사((유)서해 건축사사무소), 송경규 건축사(중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계 그룹), 박광성 건축사(바우 건축사사무소)
- ⑥ 본협회의 강성의 회장을 중심으로 신입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⑦ 전북건축사회 이성업 회장이 회감을 맞이한 회원들에게 소정의 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 ⑧ 금년도 대학입학 자녀를 둔 건축사 회원들에게 기념품 증정식이 진행되고 있다.
- ⑨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 회원들을 대신하여 이성업 회장이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에게 찬조금을 전달하였다.
- ⑩ 제46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빈, 임원, 자원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 때입니다

##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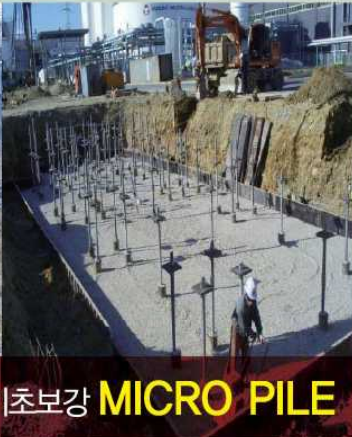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25-1번지 반석빌딩 2층

T. 031) 577-1673 F. 031) 577-1674

광주지사. 김유성 이사 010. 5007. 8437



### 반석기초이앤씨(주)

www.bs-base.c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